

# 회원대학 소식

## ● 연세대

연세대학교(총장 김한중), 한국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1월 11일(수) 오후 4시 연세대학교에서 업무제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업무 협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세대”는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면, “기술보증기금”은 “연세대”가 추천한 기업에 대하여 기술평가, 기술금융, 기술이전 등 사업화를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며, “산업은행”은 “연세대”가 추천하고 “기보”가 보증지원한 기업에 대하여 여신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또한, 각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이번에 체결된 협약으로 인해 세 기관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보다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효과를 창출하게 된다. 협약식에는 연세대학교 신명순 부총장, 한국산업은행 신동혁 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기원 이사 등이 참석하였다. 연세대학교 신명순 부총장은 협약식에서 “그 동안 연세대학교는 대학연구소의 성공적인 연구 결과를 중소기업에 인계해 상용화함으로써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을 확대, 대학 내 인재 육성을 위해 힘써 왔다.”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연세대학교는 단순히 기술을 이전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고급 R&D 활동과 기술축진의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신동혁 부행장은 “최근 대외 경제 여건이 호전되고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화되면서 일부에서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 위기가

완전히 종식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도 기술사업화 단계에서 원활한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인 시점에서 본 업무 협약이 산학 금융협력의 바람직한 모델로서 국가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고, 기술보증기금 이기원 이사는 “과거에는 대학이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이전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지금은 학교에서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단계를 넘어서서 기술지주회사 등을 설립하여 직접 사업화에 뛰어드는 단계로까지 발전해나가고 있다. 기보는 대학의 노력에 적극 부응하여 우수한 기술이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기술평가, 기술이전, 기술금융지원까지 전 분야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 ● 금강대

금강대(총장 성낙승)는 재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해외 명문대학원에 진학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2년간(석사과정) 학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학 금액은 3개 언어권으로 나누어 2년간 지원하되 영어권은 연간 2만 8000달러, 일본어권은 연간 2만 1000달러, 중국어권은 연간 1만 4000달러 상당이다. 이는 국비장학생 장학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지원에 힘입어 금강대학교 졸업생들은 2007~2008년에 10여 명에 이어 2009년 올해에도 미국의 펜실베이니아대, 미시간대, 조지타운대, 일본의 도쿄(東京)대(2명), 와세다(早稻田)대(2명), 중국의 베이징(北京)대, 푸단(復旦)대 등 해외 명문대 대학원에 10여 명이 합격한 것을 비롯해, 2007년 일본 정부초청 7년 장학생(연구생, 석사, 박사)으로 최연소 학생으로 합격선발되었으며 2009년에도 연이어 일본 정부초청 7년 장학생과 3년 박사과정 장학생으로 합격 선발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8년에는 고시반 설립 2년 만에 충남북지역 38개 대학 중 유일하게 금강대학교 재학생 이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

여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중앙정부의 지역인재추천채용 6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연이어 3명의 합격자를 배출(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근무)하는 쾌거를 이룩하여 지방의 명문사학으로 부상하고 있다.

## ● 부산대

부산대(총장 김인세)는 2010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생 2,913명 중 신청자 300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11일부터 29일까지 밀양캠퍼스 대학생활원에서 3주간 합숙하며 대학생 활을 체험하는 'PNU Prestart Program'(프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수시합격생의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체계적인 진로 로드맵 설계를 지도함으로써 미래 우수 효원인을 양성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3주간 총 90시간 동안 진행되며 영어(원어민) 강의, 진로캠프, 모의 토익평가 및 신입생 취업 어학캠프 등과 정규과정 외 야간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체험활동이 예정돼 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에게는 실용영어(원어민 수업) 평가시험 통과자에 한해 실용영어 1 학점이 부여되며, 입학 후 해외연수

(해외도전과 체험, 해외봉사활동 등) 신청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 ●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총장 이원우, 이하 꽃동네대학교)가 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12시부터 17시까지 청주시 수곡2동 산남종합사회복지관 일대에서 '모두가 편한 길 만들기' 라는 테마를 가지고 제 9회 함.우.리(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를 개최하였다. 올해로 아홉 살이 된 함우리(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는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학생들과 산남종합사회복지관이 주체가 되어 소외된 사람들 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사회 운동이다. 금번 함우리는 보행약자의 이동권 침해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슈화시켜 더 나은 보행 환경을 만들고자 개최한 것으로 이번 캠페인에는 가두행진, 주민보행체험, 사진전, 주민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주민보행체험(노인 보행체험, 휠체어이동체험, 시각 장애 체험 등의 경우, 신체적으로 다른 보행약자(어르신, 아동, 임산부, 장애인 등)의 입장에서 보행 체험을 해 봄으로써 보행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주민의식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부경대

부경대와 부산대가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등 유럽연합(EU) 4개 대학과 해외복수학위제(석사)를 공동 운영한다. 이 2개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 대학과 해외복수학위제를 운영하는 것은 처음이다. 30일 부경대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가 EU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EU 선진산업국과의 교육협력 프로그램(EU-ICD)'에 부경대, 부산대 컨소시엄대학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부경대는 컨소시엄대학인 부산대와 협력하여 2010년부터 3년 간 각 대학 20명씩 모두 40명의 학생들을 EU 4개 대학으로 파견한다. EU측 대학은 △영국 이공계 선두대학인 임페리얼 칼리지, △세계적 산학연교류 모범대학인 핀란드 오울루대학, △스웨덴 최고 수준의 공과대학인 룰레오 공과대학, △프랑스 경제·경영학 요람인 국립 파리-도핀대학 등이다. EU측 대학도 모두 40명을 부경대와 부산대로 파견한다. 학생 파견 경비는 양국 정부가 각각 부담한다. 상대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상호 인정된다. 학생은 상대 대학에서 1

학기 이상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자국에서 소정의 과정을 거치면 자국과 상대 대학 등 2개 대학의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부경대와 부산대는 EU 대학 측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뒤 정보통신, 의학기술, 테크노비즈니스 및 경제 경영, 유럽학 분야의 협동교과과정을 신설, 내년부터 학생 교류를 시작한다.

## ● 가톨릭대

'한국가톨릭계대학 총장협의회' 창립총회가 13일 오후 5시 30분 반포 소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솔로몬의 방'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 참여한 대학은 가톨릭대(총장 박영식), 광주가톨릭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대구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가톨릭대, 서강대, 수원가톨릭대, 인천가톨릭대와 가톨릭상지대 등 전국 11개 대학이다. 그동안 가톨릭계 대학간 교수나 학생들의 교류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총장들의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총회에서 가톨릭대 박영식 총장이 초대 회장으로, 서강대 이종욱 총장과 대구가톨릭대 소병국 총장이 부회장으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이원우 총장과 부산가톨릭대 윤경철 총장이 감사로 각각 선임되

었다. 임원 임기는 2년이다. 이날 협의회는 이웃과 사회에 봉사하는 참다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공동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내용을 포함한 창립선언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21세기형 인성교육 특성화를 위한 연구와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개발하여 보급하고, 정부에서 시행하는 교육, 사회, 문화, 여성, 보건복지 등 사회 전반에 대한 연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정책에 대한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박영식 초대 회장은 "오늘날 인성교육의 문제는 한 대학만의 문제가 아닌 여러 대학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라며, "앞으로 인성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안동대

유교문화권 전통마을의 문화지식 자원화 연구를 과제로 2단계 BK21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안동대학교(총장 이희재) 대학원 민속학과 전통마을BK21사업팀(유교문화권 전통마을의 문화지식 자원화 연구사업팀 : 팀장 임재해 교수)이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상위 사업팀에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2007년,

2008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상위 사업팀 선정이었는데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전통마을BK21사업팀에서는 올해에도 전통마을에 대한 조사와 연구, 디지털기반의 자원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9월, 안동전통문화콘텐츠박물관과 공동개최한 기획특별전시회 “그쪽 안동은 잘 있니까?”가 안동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또한, 안동대 생명자원과학과 BioBK21사업팀(경북생물건강산업 연구인력양성사업팀 : 팀장 김용균 교수)은 제2단계 BK21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에서 1위 사업팀으로 선정되었다. 안동대 BioBK21사업팀은 지역 핵심 산업 분야인 생물건강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 교육 및 연구기반의 확립을 목표로 2006년도부터 대학원생장학금, 국제학회참석, 국제저명학자초청 및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우수한 석박사를 배출하고 있다.

## ● 전북대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신·재생에너지와 식품산업 등 지역성장동력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지역 연구 기관과 잇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인·물적 교류에 나섰다. 전북대는 17일 오후 3시 대학본부 8층 회

의실에서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원장 강수기)과 ‘식품·바이오 기술 및 전북 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학술 정보의 교류 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식품·바이오 기술 및 전북 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래 식품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에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식품·바이오 유치 및 창업보육, 식품·바이오 기술의 실용화, 식품 경영 및 비즈니스 지원, 식품안전지원, 디자인지원, 생산지원 등에 대한 자료 정보 교환, 그리고 인적 자원의 상호 파견 등 양 기관의 전문 인력 활용 토대 구축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전통 식품의 혁신 및 상업화와 발효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과학화, 식품·바이오 기술 혁신, 식품 경영,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등에 관한 다학제 융합적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장비 및 시설의 공동 이용 및 현장 실무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노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에도 내 유일하게 선정돼 이 사업 수행을 위해 지난 9월 문을 연 ‘전북대 신재생에너지 산업인재양성센터’(센터장 설경원 교수)도 이날 오후 5시 30분 ‘5+2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

성사업’의 일환으로 광주, 전남, 전북의 선도 산업별 프로젝트 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 초괄 관리 등 총괄 주관기관 역할을 위해 설립된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지원단’(단장 남기석 교수)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이 수행하고 있는 동북아 태양광과 서남해안 풍력산업 구축사업에 있어 서로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 진행과 사업 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동북아 태양광과 서남해안 풍력산업 구축사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업 목적 실현을 위한 정보 교류와 전문 인력 교류 및 관련 시설의 공동 이용에도 뜻을 같이 했다.

전북대 서거석 총장은 “전북생물산업진흥원과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과의 오늘 협약은 식품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전북의 성장동력산업을 우리 대학이 선도한다는 데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관련 분야의 탁월한 연구 및 우수인력들을 긴밀히 교류해 지역 신성장동력산업 발전에 전북대가 첨병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전주대

전주대(총장 이남식)는 11월 19일 오후 2시부터 20일 12시까지 유성스파피아에서 열리는 제32회 한국지역대학연합 회의에 이남식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12명이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는 '대학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 제도 활용'에 대하여 토론하였으며, 개회식에는 송인동 대전정보부시장의 축사와 최수태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선진화정책관의 기조 강연이 있었으며, 계명대 이용덕 교수, 아주대 김민구 기획처장, 한남대 정상기 대학혁신평가위원장, 호남대 백란 교육역량평가실장이 '대학 자체평가와 대학정보공시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였다. 학문분야 주제 발표에서는 '기초소양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경남대 김종규 교무처장, 관동대 김정아 교수학습개발센터장, 울산대 박종희 교무처장, 전주대 정홍진 교양학부장 등이 발표하였으며, 세션 워크숍에서는 '교원양성기관협의회 구성, 한자와 한문 e-러닝콘텐츠 개발'에 대하여 각각 토론을 하였다. 한국지역대학연합(RUCK: The Regional University Consortium of Korea)은 대학교육의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해 지역대학 간의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로 교육의 질 향상과 학술·행정의 교류 및 대학운영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995년에 결성됐으며 현재 한남대, 계명대, 경남대, 관동대, 아주대, 울산대, 전주대, 호남대 등 전국 8개 대학이 회원대학으로 참여하고 있다.

## ● 상명대

상명대학교 영상·미디어연구소(소장:양종훈)에서 올해 제작한 '2009 마음으로 보는 세상, 마음으로 보는 서울' 사진집이 '2009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9일(수)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20층)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상명대학교 양종훈 교수(영상학부)가 직접 수상을 하였다. 총 7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 사진집은 모두 시각장애인들이 직접 찍은 것으로서 약 10개월에 걸친 작품활동의 결과물이다. 10명의 시각장애인 사진작가들은 올 초부터 매주 2~3회에 걸쳐 카메라 조작법 및 사진촬영법 등을 교육 받고 실제로 북한산, 남산, 서울시내 공원, 광화문 광장, 한강둔치, 서울 만포공원, 인천 해변가, 수도권매립지, 스튜디오, 공연장 등등을 찾아 다니며 손으로 만져보고, 소리로 듣고, 주위 사람들의 설명으

로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사진에 담아 왔다.

## ● 한국외대

한국외대는 중국 국가 중국어 보급 사무실과의 협정에 따라 공자아카데미 설립 절차를 마치고 10월 31일(토) 국제관 애경홀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 교육부가 해외에 중국어 교육과 중국 문화 보급을 위해 설립한 교육 문화 기관으로, 서울 지역 대학 안에 공자아카데미가 설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9월18일(금) 북경 현지에서 공자아카데미 설립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데 이어 북경외국어대학과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10월 14일에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외대 중국어대학 맹주익 교수를 원장으로 선임한 후 개원을 준비해 왔다. 공자아카데미는 중국어 교사의 양성, 중국어 교사에 대한 중국어 교육 정보의 제공과 연수, 학생 및 일반인 대상의 중국어 교육, 관련 서적 출간, 중국 문화 행사 개최, 중국문화 센터 설립 및 한·중 간 e-러닝 시스템 도입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철 총장은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는 국내 제일의 국제화 교육환경을 갖추고 중국 문화와 학술에 있어서 다양한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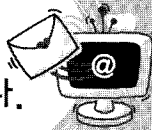
역을 연구하는 교수님들의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어 교육, 중국학 연구, 국제화의 우의를 충분히 발휘하여 양국의 교류 촉진과 우호 증진에 민간 외교의 역할을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대학은 공자 아카데미 개원을 축하하기 위해 개원식 행사를 전후하여 '한중문화축전'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개원식에는 박철 한국외대 총장, 정영화 주한중화인민공화국대사, 지재은 한국외대 중국어대학장, 맹주억 한국외대 공자아카데미 원장, 양학의 북경외대 교무위원회 주석 등이 참석하였다.

### ◎ 한양대

한양은 지난 70년 간 대한민국의 공학 및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인력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본교가 양성한 기술 인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성장동력(Engine of Korea)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온 한양은 명실 공히 세계적 공학 교육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성장했다. 지난 79년에 문을 연 ERICA캠퍼스는 학교를 중심으로 각종 연구소와 기업체, 공공 연구기관들이 한 울타리 안

에서 협력하는 국내 최고의 학연산 클러스터 중심 캠퍼스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ERICA캠퍼스가 캠퍼스 명칭에 걸맞은 미래형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한다. ERICA캠퍼스의 지난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미래형 학연산 클러스터·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 회원 대학의 소식을 기다립니다.

회원대학 소식제재 신청  
infor@kcue.or.kr

기사를 보내주시면 회원대학 소식에 게재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학교육 홈페이지 주소

<http://magazine.kcue.or.kr>

「대학교육」에서  
고등교육의 다양한 이슈와 정보,  
대학소식을 접하시기 바랍니다.

대학교육 홈페이지- '지난호 보기'  
메뉴에서 지난 대학교육 원고 및  
기사를 pdf와 e-book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